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24(금) ~ 2025.10.30(목)

제공일시 2025 11 7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24(금) ~ 2025.10.30(목)

제공일시 2025 11 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車·부품 관세 15%로 인하...반도체,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

- 한·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수혜를 얻게 됨
- 일본·유럽연합(EU)보다 높은 25%의 관세를 부담해온 현대차·기아는 이번 합의로 연간 약 3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됨
-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, 제네릭(복제약) 등 신산업 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

[\(한국경제 2025.10.29\)](#)

### 2. 美·日, 에너지·AI·핵심광물 공급망에 대규모 공동투자...“전략적 동맹 경제축 강화”

-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이 에너지, AI 인프라,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대한 대규모 공동투자에 합의함
- ‘日美 투자 공동 팩트시트’에는 원전, 소형모듈원자로(SMR), 데이터센터 전력 장비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핵심 광물 정제·운송 시설 등이 포함됨
- 웨스팅하우스·GE벨노바·히타치가 추진하는 AP1000·BWRX-300 사업에 일본 기업이 참여를 검토하며, 최대 1000억달러 규모 사업 구상 가능성이 제시됨

[\(경북매일 2025.10.29\)](#)

### 3. 베트남 탄소 시장 문 연다, 배출권 거래 본격화

- 베트남 정부가 2026년 말까지 탄소 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크레딧 거래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임
- 레 쩡 만 국회 사무총장이 발표한 환경보호법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, 해당 일정은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남
- 거래소는 배출 할당량과 탄소 크레딧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며, 내년 말까지 설립·운영이 추진될 예정임

[\(아주경제 2025.10.29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[2025 국감] 기후부, 11차 전기본 공식 수용...2040년 NDC 신규 원전 포함 '첫 인정'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(11차 전기본)을 공식 인정하고, 204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음
- 김성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"2035년 NDC에는 원전을 포함하기 어렵지만 2040년에는 가능하다"며 11차 전기본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함
- 정부는 2035년 NDC에 소형모듈원자로(SMR) 1기, 2040년 NDC에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포함해 총 32기 원전 가동을 확정할 계획임

[\(뉴스핌 2025.10.29\)](#)

### 2. 풍력발전 입찰 10년 로드맵 나온다

- 정부가 2035년까지 풍력발전 입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풍력 공급망 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'풍력 산업 발전 종합계획'에 2030~2035년까지의 장기 입찰 로드맵을 포함할 방침임
- 로드맵에는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, 공공 주도 사업 확대, 금융·인프라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임

[\(아시아경제 2025.10.27\)](#)

### 3. 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법 12개 개정법안 국회 통과

-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'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' 등 12개 환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
- 개정안은 환경권 보장 명문화, 순배출량 기준 온실가스 관리, 감축목표 연도별 점검 및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및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 보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

[\(환경과조경 2025.10.27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美, 웨스팅하우스와 '800억 달러' 원전 추진...현대건설·두산에너지빌 수주 기대

- 트럼프 행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800억달러(약 110조원)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며, 현대건설과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수주 확대가 기대됨
-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내 최소 수 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, 브룩필드자산운용과 카메코도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함

[\(더구루 2025.10.29\)](#)

### 2. 거린에너지, EDP 리뉴어블스 韓 풍력·태양광 사업 인수

- 싱가포르 재생에너지 기업 거린에너지가 EDP 리뉴어블스 아시아태평양(APAC)의 국내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인수함
- 인수 대상 용량은 303MW(메가와트)이며, 이번 거래로 거린에너지의 한국 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는 600MW 이상으로 확대됨

[\(헬로티 2025.10.29\)](#)

### 3. “회사를 위해 그만 나가주시죠”... AI 올인한 이 기업, 한 번에 3만명 날린다

- 아마존이 인공지능(AI) 중심의 조직 개편에 따라 최대 3만명의 사무직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함
- 인사운영·클라우드(AWS)·디바이스 등 주요 부문이 대상이며, 팬데믹 시기 확충된 인력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알려짐

[\(매일경제 2025.10.28\)](#)

### 4. 바스프·포르쉐, 폐차 복합 폐기물 재활용 기술 상용화 실증

- 바스프가 포르쉐 및 오스트리아 연구기관 BEST와 협력해 폐차 파쇄 잔재물(ASR)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
- 고성능 플라스틱과 재생 가능 원료를 결합해 복합 폐기물의 순환 재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며, 자동차 산업 내 자원순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

[\(헬로티 2025.10.28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포스코인터내셔널, 성공적 에너지믹스 전환 위해 에퀴노르와 파트너십 강화

-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노르웨이 에퀴노르(Equinor)와 해상풍력, 강재공급, LNG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

- 양사는 해상풍력 공동개발과 강재공급, LNG 조달·공급, 신규 에너지 분야 공동사업 발굴 및 워킹그룹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음

[\(가스신문 2025.10.29\)](#)

### 2. KB·산은,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에 3.3조원 댄다

-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집단에너지 사업에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열병합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함

- 금융 실사에 착수한 두 기관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,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임

[\(매일경제 2025.10.29\)](#)

### 3. 탄소 배출권 부족한 포스코, 年 부담 수백억원 늘어난다

- 포스코가 2027년부터 배출권 부족으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됨

- 제4차 계획 기간 배출권 할당량이 전기 대비 15.5% 축소되며, 포스코는 구매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

[\(조선비즈 2025.10.30\)](#)

### 4. LG전자·SK엔무브·GRC, 'AI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사업' 맞손

- LG전자와 SK엔무브, 미국 GRC가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액침냉각 기술 실증(PoC)에 착수함

- LG전자의 냉각 솔루션, SK엔무브의 냉각 플루이드, GRC의 냉각 탱크를 통합해 신규 액침냉각 비즈니스 발굴을 추진할 계획임

[\(SWTV뉴스 2025.10.28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24(금) ~ 2025.10.30(목)

제공일시 2025 11 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트럼프 관세, 석유·가스 산업에 역풍...비용 40%↑·투자 500억달러 연기

- 미국의 금속 관세 인상이 석유·가스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는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고율 관세가 에너지 산업의 비용·공급망·투자 일정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
- 미국 정부는 북미무역협정(USMCA) 비적용 원유에 10~25%의 관세를 부과하고, 철강·알루미늄·구리와 이를 활용한 압축기·펌프 등 산업용 기자재에도 최대 50%의 관세를 적용함
-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자재 및 서비스 비용은 최소 4%에서 최대 40%까지 상승할 수 있고, 약 500억달러(약 71조800억원) 규모 해상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(FID)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됨
- 시추장비·밸브·특수강관 등 주요 설비를 해외에 의존하는 미국 석유·가스 산업은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으며,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
- 시추용 강관(OCTG)은 수입 철강 의존도가 높아 최대 40% 비용 상승이 예상되며, 해상 서비스 비용은 15%, 해상 프로젝트는 8%, LNG 건설은 4.6%, 시추 및 완결 공정은 4.5%, 전체 유정 비용은 4% 오를 수 있음
- 정유 부문도 예외가 아니며, 캐나다산 원유에는 10%, 멕시코산 원유에는 25%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WTI-WCS(서부텍사스중질유-서부캐나다중질유) 가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
- 이러한 관세 조치는 미국 정유사의 조달비용과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, 일부 정유사는 공급선 다변화와 원유 조달계약 재협상을 추진 중임
- 관세 인상은 투자 일정 지연과 계약 구조 변화도 촉발하고 있으며,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(에스컬레이션)·불가항력·법령변경 조항을 포함하는 유연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임
- 공급망 전략도 기존의 '최저가 조달' 중심에서 '회복력 중심'으로 이동하고 있으며, 자유무역지대(FTZ) 활용, 국내 공급선 전환, 품목 재분류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임
- 딜로이트는 단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투자 둔화가 불가피하나, LNG 수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AI 기반 예지정비·공정 최적화 등 디지털 기술이 비용 상승 구간의 마진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함
-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기업들의 조달 전략과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, 특히 중소 서비스 기업의 경우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

[\(임팩트온 2025.10.30\)](#)